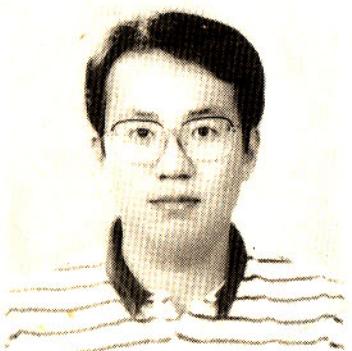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Ⅲ) 카나다경제의 특징과 그에 따른 한국인의 진출전략

김영수 (경제학박사)



세번째 소님 어디다 말을 뺀 것인가?

좀 확실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논하는자는 취지로 막을 거창하게 올린 제 3장의 서두에서 필자는 '영어문제'와 '정보수집'의 문제에 관하여 상식적인 차원에서 무언가 이런 저런 설명을 하였다. 그러한 이런 저런 설명을 壓縮 재요약하자면, ①죽자 사자 영어공부 하되 기초부터 다시 하지 말고, ②돈을 쓰고 정보를 사되 물어보고 돈을 쓰라' 이 두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두마디는 나무 판자에 새겨서 부엌에 걸어두시던가 하여서 절대로 잊어먹지 않으시기 바란다.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자.

우리의 위대한 보통 한국인 민자께서 영어문제와 정보수집 그 다음으로 신경을 쓰실 문제는 다름 아닌 '주택선택'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이 소단락에서는 카나다에서 뱅쿠버에서 '주택', 아니, 조금 더 학술적 절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거주환경의 선택'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보자.

정말 이 거주환경의 선택이란 것은 인간에게는 진실로 진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아무리 잘나고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사람이란 등따시고 발뺌을 곳이 있어야 다른 일도 잘풀리는 법이라는 그야말로 상식적인 真理를 무시하면 안된다. 정말 그렇다. 해가 기웃기웃 어둑어둑 해지면 피곤한 틈을 이용하고 돌아갈 곳. 굴뚝에서는 감자굽는 냄새가 풍풍 올라오고,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히히닥대고, 착한 색시는 남편 돌아오기를 목빠지게 기다리고... 이런 환경이 잘 마련되지 않고서는 가장들이 밖에 나가서 활기찬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다. 하여간 유식하게 '家和萬事成' 이로구나! 지화자 커~'라고 할 것도 없이 '집구석이 편해야 다른 일도 잘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좋은 집구석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事件이자 分岐點이자 分水嶺이자 갈림길이 아닐 수 없다. 밖에서 아무리 주어터지고 와도 집구석이 편한 사람은 다음 날이면 다시 싸움을 새로 시작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집구석이 편하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乘勝長驅하고 들어와도, 다음 날이면 또, 풀이 죽어서 하루를 시작해야한다. '집구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깊게 관찰해 보면, 이 '집구석'이라는 말은 분명히 '空間'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位置 단어이지 추상적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관념적 關係 단어가 아니다. 이야기가 약간은 아리까리해 지지만, 우리 조금만 더 유식하게 이야기를 계속하자. '가족'이라는 인간관계의 기초는 '혈연'이라는 생물학적 관계뿐이 아니라, '집구석'이라는 위치적 공간적 기초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家'라는 요상한 한자를 보아도 그렇다. 한지붕 아래 여러 사람이 용기종기 모여서 공동체 관계를 맺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집이라는 한자 '家'자다. 즉, '지붕아래'라는 공간적 위치적 개념이 '집'이라는 말의 의미의 主宗을 형성한다. 정말 그

렇다. 그래서 남자는 配偶者를 '집사람'이라고 부른다. 밥을 해주는 사람이라거나, 잠자리를 해주는 같이 해주는 사람이 라거나 하는 意味인소를 사용하여 배우자를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인소를 사용하여 '집사람'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집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아내'라는 말도 그렇고, 일본말의 '아내'인 家内라는 말도 여전하다. 하여간, 가족 관계, 집구석, 가정환경... 이 모든 것이 位置와 關聯이 關聯할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관념들인 것이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집과 母性과 性과 人間과 肉體와 宇宙와 宗敎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유식한 청년들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여왔는지 등에 관해서 자유롭고 신나게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지만, 여기서야 돈버는 방법에 논의를 局限한 이상 자꾸 판데로 새는 일은 하지 말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하여 논리를 조금만 더 힘써서 전개한다면, 가족이라는 혈연집단의 거주환경, 즉, 집구석을 잘 잡는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집단의 運營 상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家長의 사회 경제활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이다.

그렇다. 집구석을 잘잡아야만사가 잘 풀린다. 그렇다면, 그 다음 절로 따라오는 질문은 당연히 '편한 집 구석' 또는 '좋은 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나면, 필자의 또 하나의 순영터리 專攻 分野인 風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天機를 너무 濫泄하게 되어 큰일이 난다. 특히, 요사이처럼 10월 28일 지난지 며칠 안되어서는 더욱 그렇다. (하여간, 거창한 풍수이야기와 그에 따른 天機의 濫泄은 이따 조금만 더하기로 하고, 복잡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필자가 곧 출판하고자 하는 "곰(熊)의 땅과 아버지의 손(手)"이라는 다른 두꺼운 비싼 책을 통하여서 그 책을 제돈 주고 사서 보시는 분에게만 獨占 제공하기로 하자.) 일단, 본란에서는 '편한 집구석'이란 나와 내 식구가 자주 다닐 장소(직장과 학교, 그리고 시장)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가까운 곳, 주위에 흥하고 냄새나는 물건이나 위험한 사람들이 없는 곳, 식구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수리 자주 하지 않아도 되는 곳...

정도로 상식레벨에서 상식적으로만 정리를 하자. 사실, 어디를 가도 맑은 수도물을 활활 나오고 전기불 훤히 밝은 요사이에는 험하기 유명한 동네아닌 곳에 있는 웬만한 집이면 어데를 가도 편하기 짜이없다. 그리고, 몇시간만 어슬렁 거려보면 동네가 '유명하게 험한 동네인가 아닌가'는 쉽사리 알 수 있다. 즉, 편한 집구석 찾기는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지만 요사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소리이다. 즉, '생활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에 좋은 집구석을 찾는 일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찾아보아서, 마음에 드는 것을 몇개 고른 다음 가장 싼것을 고르면 된다.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사실은 실제로 주거환경을 고르는 것은 전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필자 김영수 Cranewood Corp 대표 682-8686>